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6-10호 (2026.10.23)

■ 이 슈

(산업) 인천시 인공지능(AI) 산업
현황 점검

■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반도체산업 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6-10호 (2026.10.23)

Cotents

I. 이 슈

(산업) 인천시 인공지능(AI) 산업 현황 점검 1

II.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반도체산업 시장 동향 7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10

III. 국내 정책동향

(경제) 정부, 자원안보 중장기 로드맵 마련 11

(경제)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시행 11

(경제) 2027년 하반기, '우리아이 자립펀드' 출시 12

(산업) 기후부, 폐자동차 모터에 포함된 희토류 재활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12

(산업) 중소 화장품 기업의 유럽 진출을 지원하는 K-뷰티 체험·판매장 개소 · 13

(산업) 산업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발표 13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의 투자·기술혁신 뒷받침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마련 · 14

(산업) 정부, '녹색전환계획(2026~2035)' 발표 14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센터장

상민경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연구원

산업

인천시 인공지능(AI) 산업 현황 점검

+

#AI 산업 #국가 정책 #인천시 #산업 현황

-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붐과 함께 국내에서도 AI 관련 산업¹⁾이 크게 도약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확대 및 AI 분야 글로벌 탑티어 국가 달성을 위한 국가 대전환 계획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발표
 - 인공지능(AI)이란 △학습 △지각 △추론 △판단 △언어의 이해 △데이터 분석 등 인간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들을 전자적 방법을 이용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과학 분야이자, 이를 통해 현실 또는 가상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현된 프로그램·기계·시스템 등을 의미
 - World Bank(2026.10)는 AI 관련 수출 호조를 반영하여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026년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4.5%로 상향 조정하며, 한국은 AI 수요 증가로 반도체 부문이 수혜를 입고 있음을 언급
 - 동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중국·일본과 더불어 세계 주요 AI 특허 창출 국가 중 하나로 언급하며, 한국의 경우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인력 규모가 상대적으로 중견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AI 특허 출원이 활발한 국가로 인정
 - 2026년 2월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 비전 달성을 위한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의 3대 정책 축을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발표

[표 1] 「인공지능산업 분류체계(안)」 및 주요 업종 예시

대분류	중분류	예시
1.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인공지능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AI 전용 운영체제(OS), AI 분산 컴퓨팅 환경 소프트웨어, 데이터 관리 및 AI 최적화 시스템 등
	2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및 공급업	LLM API 제공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AI 플랫폼 등
	3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업	AI 기반 생산성 소프트웨어, AI 자율주행 로보틱스 소프트웨어 등
	9 기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 인공지능 구축·관리 및 관련 정보 서비스업	1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및 관리 서비스업	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AI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 등
	2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구축 및 관리 서비스업	스마트 제조 품질관리 솔루션 구축, 맞춤형 기업 AI 솔루션 구축 등
	3 인공지능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클라우드 AI 연산 자원 호스팅, AI 서버 임대 서비스 등
	4 인공지능 기술 및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업	AI 산업별 맞춤 비즈니스 지원, AI 컨설팅 등
3. 인공지능 연산 및 처리 부품/장치 제조업	9 기타 인공지능 정보 서비스업	-
	1 인공지능 반도체 제조업	GPU·TPU·NPU 제조, HPC AI 반도체 제조 등
	2 인공지능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	AI 보안 네트워크 장비, 데이터센터용 AI 장비 등 제조
	3 인공지능 서버 제조업	AI 전용 GPU 서버, AI 슈퍼컴퓨터 서버 등 제조
	4 인공지능 스토리지 제조업	AI 전용 고속 스토리지 시스템 NVM 기반 AI 스토리지 등 제조

* 자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26.04.) 참고 및 재구성

1)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26.04)는 AI 산업을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3개 대분류, 13개 대분류의 산업 분류체계(안)을 제시.

○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서는 인공지능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인공지능 사회를 구상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AI 고속도로 구축 및 인재 확보 △산업 및 공공 분야 AX 전환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등을 포함한 12대 전략 분야 및 실천 과제를 제시²⁾

- 우리나라는 AI를 국가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한 이래 인프라 구축, 데이터 축적, 산업생태계 조성 등 AI와 관련한 국가 단위의 기본계획을 꾸준히 발표
- 2019년 AI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 국가전략」이 발표된 이후 「신뢰할 수 있는 AI전략(2021)」,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022)」, 「AI 일상화 실행계획(2023)」, 「AI·디지털 혁신성장 전략(2024)」,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2026)」 등 AI 관련 R&D부터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신뢰성 확보, 사회 전환 등을 목표로 하는 다방면의 계획을 수립
-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연관부처에서도 AI 기술 연구 및 산업현장의 AI 적용을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정부가 주도, 민생과 1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리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3가지 정책방향과 12가지 실천과제

정책축 01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
대한민국은 AI가 꽃 필만큼 자라고
날다 못할 만큼 잎도 푸르고, 기술, 인재,
모범, 제도를 함께 키워가겠습니다.

AI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 ① AI 전용 고속도로 인프라 구축: 데이터, 반도체, 전력 등 AI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인프라 마련
- ② 차세대 AI 핵심 기술 선점: 전 세계 기술 경쟁에서 맨 앞줄에 서기 위한 미래형 초거대 AI 모델 개발
- ③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인재 확보: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적인 AI 연구자와 핵심 전문 인력 집중 육성
- ④ 대한민국 독자 AI 모델 완성: 해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문화와 가치관을 가장 잘 아는 우리만의 AI 보유
- ⑤ 스타트업과 연구자를 위한 규제 혁신: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무거운 법과 제도적 걸림돌을 과감하게 제거

정책축 02 범국가 인공지능 기반 대전환
AI를 산업, 공공서비스, 지역, 문화,
국방 전반에 활용에 일하는 방식과
생활 방식을 바꿔가겠습니다.

AI가 나라 곳곳에서 쓰이게 만듭니다

- ⑥ 주력 산업의 AI 융합(산업 대전환): 제조, 금융, 바이오, 의료 등 대한민국 대표 산업을 AI를 결합해 생산성 극대화
- ⑦ 행정과 복지, 교육의 AI 도입(공공 대전환): 학교 맞춤형 교육부터 복지 서비스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변화
- ⑧ 전국이 똑똑해지는 지역 AI 허브 조성(지역 대전환): 수도권 쏠림 없이, 전국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AI 혜택을 누리도록 균형 발전
- ⑨ K-콘텐츠와 AI의 만남(문화강국): 웹툰, 게임, K-팝 등 세계적인 K-문화에 AI 기술을 더해 크리에이티브 혁신
- ⑩ 첨단 기술 중심의 AI 국방 안보 구축(국방강국): 군대와 방위 체제에 지능형 AI를 도입해 더 안전하고 튼튼한 안보 국가 달성

정책축 03 글로벌 인공지능 기본사회 기어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리고, 세계와 함께
신뢰받는 AI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모두가 믿고 함께 쓰는 AI 사회를 만듭니다

- ⑪ 모두가 상생하는 AI 기본사회 실현: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도 비용 걱정 없이 AI 혜택을
보편적으로 누리는 복지 환경 조성
- ⑫ 글로벌 AI 가이드라인 리더십 확보: 대한민국이 만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국제 규제를 세계 표준으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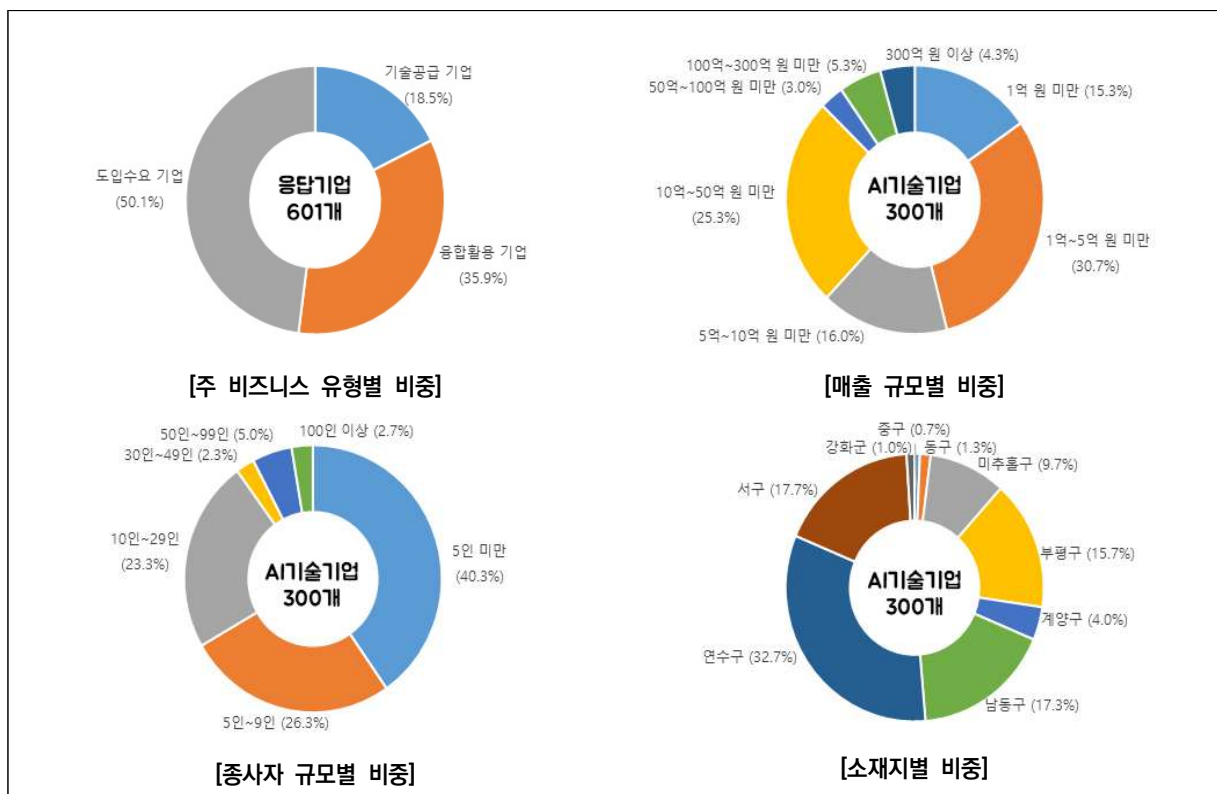
* 자료 :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2026.06.04.)

[그림 1]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주요 내용

2) 인천연구원(2026.09) 참고.

○ 인천테크노파크의 관내 AI 관련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천시 AI 산업은 기술 도입에 관한 수요 기업의 관심도가 높아 기술 도입 시 확장·발전의 여지가 충분하나, 관내 기술 기업은 대체로 소규모 사업체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산업의 기반이 미흡³⁾

- 인천테크노파크의 'AI 산업 및 AX 수요 실태조사'는 AI 도입 수요 기업 301곳과 AI 기술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요 기업 중 26.6%는 1~3년 내 AI 기술 도입 계획이 있고 71.4%는 기술 도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
 - 응답 기업 비중은 AI 도입 수요 기업이 50.1%, AI 탑재 제품·부품을 생산하는 융합·활용기업이 35.9%, AI 기술을 직접 개발·판매하는 기술 공급기업이 18.5%로, 인천시 AI 산업은 AI 기술의 직접 개발보다는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특화
- 관내 AI 기술 기업은 대체로 매출액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으로, AI 기술 기업의 매출 규모별 비중은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30.7%) △1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25.3%) △5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16.0%) △1억 원 미만(15.3%) 순
 - 응답 기업의 AI 관련 비즈니스 매출액 비중은 △매출 없음(R&D 또는 준비 단계, 38.3%) △10% 미만(진입 초기 단계, 37.3%) △10~30% 미만(12.7%)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 규모에 따른 분석에서도 절반 이상이 10인 미만 기업인 것으로 확인되어 관내 AI 기술 기업은 대체로 영세한 수준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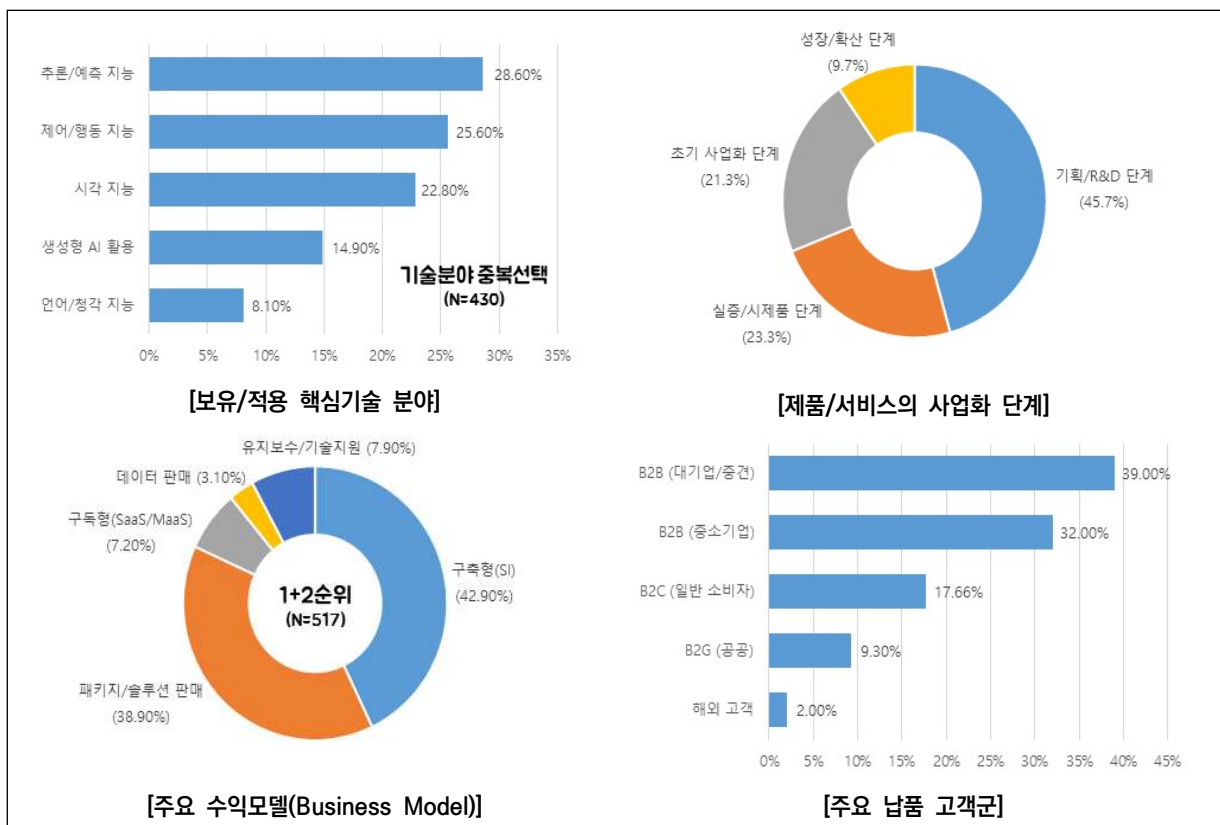
* 자료 : 인천테크노파크(2026.02), 인천연구원(2026.09) 참고 및 재구성

[그림 2] 인천시 AI 관련 기업 실태조사 응답기업 현황

3) 인천테크노파크(2026.02), 인천연구원(2026.09) 참고 및 재구성. 국가 인공지능 산업 현황에 대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지역별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인천테크노파크가 인천시 소재 AI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인천 AI 산업 실태 및 AX 수요조사'의 결과를 기준으로 인천시 AI 산업 현황을 분석.

○ 관내 AI 기술 기업은 다양한 분야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민간기업 고객을 대상(B2B)으로 하는 제품/서비스를 준비·운영 중인 상황⁴⁾

- 관내 AI 기술 기업이 보유·적용 중인 AI 기술은 학습·추론, 제어·행동, 시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은 대다수의 기업이 연구·개발 및 시제품 단계에 머물고 있어 사업화를 통해 시장에 자리를 잡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AI 기술 기업이 현재 보유 중이거나 자사의 제품·서비스에 적용 중인 AI 기술은 예측 분석, 추천 알고리즘, 최적화, 이상 탐지 등을 수행하는 ‘추론·예측 지능’ 분야가 28.6%로 가장 높으며, 제조·물류·자율주행 등 산업현장 적용을 위한 ‘제어·행동 지능(25.6%)’, ‘시각 지능(22.8%)’ 순
- AI 기술을 적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사업화를 통해 매출이 발생 중인 기업은 전체의 약 31.0% 수준에 그쳐 관내 AI 기술 기업은 대체로 사업 준비·기획 단계인 것으로 조사
- 관내 AI 기술 기업은 주로 고객사 요구에 맞춘 시스템을 개발·납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며, 민간 부문의 타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
- 관내 AI 기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사의 요구에 따른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는 구축형(SI) 방식(42.9%)이거나 기개발된 SW 및 HW 제품의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방식(38.9%)인 것으로 조사



* 자료 : 인천테크노파크(2026.02), 인천연구원(2026.09) 참고 및 재구성

* 주 : AI 기술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결과를 활용

[그림 3] 인천시 AI 기술 기업의 기술·사업 현황

4)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핵심기술, 사업화 단계 및 비즈니스 모델 등과 관련한 구분의 정의는 참고문헌 확인 요망.

○ 인천시 AI 기술 기업은 기업 내부 R&D를 통해 AI 기술을 확보하거나 제품·서비스에 적용 중으로, 인천시 AI 기술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사업화 준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인프라·데이터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

- 응답 기업들은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한 자체 커스터마이징 방식으로 AI 기술을 확보하거나 자체 연구인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AI 부문에 대한 매출액 대비 투자 비중이 낮은 편
 - AI 기술 확보 방식에 대한 응답 비중은 △오픈소스 모델 활용(47.0%) △자체 연구(36.7%) △외부 대학/기업과 협력 R&D(9.3%) △상용 API 또는 타사 솔루션 구매 등(7.0%) 순
 - 관내 AI 기술 기업 중 80% 이상이 연간 매출액 대비 AI 기술개발 투자 비율이 10% 미만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AI 기술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⁵⁾
- AI 기술 기업은 △자금 지원 △인프라 지원 △데이터 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AI 제품·서비스 개발과 관련해서는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테스트 공간 제공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
 - 관내 AI 기술 기업은 사업화 준비·초기 단계 기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으로는 R&D 개발 자금, 시제품 제작비 등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가 32.7%로 가장 높은 수준
 - AI 적용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서는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현실 또는 가상의 테스트 공간을 가장 필요한 자원으로 선정⁶⁾
- 한편 AI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확보 및 활용 과정의 애로사항으로는 △데이터 품질 미흡(27.3%) △높은 구매 비용(22.0%) △데이터 절대량 부족(21.6%) 등의 응답이 주를 이뤄, 제품·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적정 가격에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조사

[표 5] AI 기술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수요

(단위 : %)

구분	예시	1순위	2순위	1+2순위
자금 지원	• R&D 개발 자금, 시제품 제작비 지원, AI 솔루션 도입 바우처 등	45.7	18.5	32.7
인프라 지원	• 고성능 GPU 서버 이용 지원, 실증 테스트베드(Test-bed) 제공 등	30.3	27.3	28.9
데이터 지원	•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데이터 구매 비용 지원 등	14.7	21.5	17.9
인력 지원	• 실무형 AI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 인건비 보조 등	7.7	24.0	15.5
판로/마케팅 지원	• 공공기관 우선 구매,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투자유치 등	1.7	8.4	4.9
네트워킹/교육 지원	• 산학연 기술 교류회, 최신 기술 트렌드 세미나, 재직자 교육 등	0.0	0.4	0.2

* 자료 : 인천테크노파크(2026.02), 인천연구원(2026.09) 참고 및 재구성

* 주 : 각 순위별 수치는 응답 비중을 의미

5) 관내 AI 기술 기업의 매출액 대비 AI R&D 투자 비중은 △5% 미만(37.3%) △별도투자 없음(22.0%) △5%~10% 미만(22.0%) △20% 이상(13.7%) △10%~20% 미만(5.0%) 순.

6) 기술개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자원에 대한 설문 응답은 △제품·서비스 가상 실증공간(33.0%) △제품·서비스 실증공간(27.7%) △AI 컴퓨팅 인프라(24.3%) △실증 및 공공 데이터(12.0%) △기타(3.0%) 순.

○ 인공지능(AI) 산업은 인천시 민선9기의 핵심 성장 전략인 ‘ABC+E 전략’에 포함되는 주요 산업 분야로, 향후 관련 분야의 기업·산업 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우수한 AI 서비스 역량을 갖춘 고성장 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

- 인천시는 2020년 이후 인공지능(AI)과 관련한 산업전환·인력교육·R&D 등 다양한 분야의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지역 기업 AI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AI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2025년에는 「인천광역시 인공지능(AI)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⁷⁾하여 본격적인 AI 산업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
 -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인공지능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사업’, ‘AI 기반 자원순환 실증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인천글로벌캠퍼스에 기술의 모사 및 가상환경 실증을 뒷받침하는 ‘피지컬 AI 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내 AI 혁신 벤처기업의 창출 및 육성에 주력할 계획
- **(수요-공급 생태계 창출)** 관내 AI 산업은 사업화 준비·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AI와 연계할 수 있는 산업 분야는 매우 다양하므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지원을 수행하기보다는 지역 상황에 적절한 AI 산업 분야를 선별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
 - 중앙정부가 공공부문 AI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내에서는 수요-공급 간 매칭 불일치가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한편 관내 AI 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 및 성과 창출을 지원할 필요
 - 인천시는 뿌리산업을 포함한 전통 제조기업과 반도체·바이오 분야의 제조기업이 밀집해 있고 공항·항만 등 사람과 물자의 출입·이동이 활발한 도시이므로, 이러한 지역 환경과 연계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AI 기술 분야를 집중지원하는 것이 중요⁸⁾
 - 특히 피지컬 AI(Physical AI)⁹⁾ 분야의 경우 관내 제조기업의 도입 수요가 충분한 만큼 AI 기업 및 로봇기업 등 연관 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지원책을 마련하여, AI 산업의 발전이 지역 내 제조업과 연계되어 파급효과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상할 필요
- **(인프라 강화)** 인천테크노파크의 조사에서 확인된 정책 수요에 따라 △분야별 실증 공간 확보 △양질의 연구용 데이터 확보 및 이용 방안 마련 △고성능 GPU 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통해 AI 기술 기업의 기술 R&D 및 실증을 지원할 수 있는 양질의 인프라 제공 방안 마련이 요구
 - 특히 관내 AI 기술 기업은 ‘가상 실증공간 수요(33.3%)’가 가장 높은 만큼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에 기반한 제조·물류·공항·항만 현장의 가상 훈련센터를 구축하여, 피지컬 AI 등의 사전 훈련·검증과 합성데이터 생성을 지원하고 현실 공간과 연계한 ‘가상 훈련-현실 실증’ 체계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

7) 조례에는 △AI 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AI 기술 개발·도입·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 △AI 분야 창업지원 및 인력개발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

8) 인천연구원(2026.09) 참고. 인천테크노파크의 조사에 따르면 인천시 관내 AI 도입 수요 기업은 주로 ‘생산·제조 공정(29.5%)’과 ‘물류·재고 관리(20.0%)’ 분야에 AI 기술을 도입 활용 중.

9) ‘피지컬 AI(Physical AI)’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의 물리적 실체와 결합하여 카메라·마이크·관성 측정 장치(IMU)·센서·라이다(LiDAR)·레이더(Radar) 등을 통해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거나 입력된 인간의 명령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 물리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의미.

제조 > 반도체산업 시장 동향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디바이스 #반도체 제조장비

- 2026년 9월 기준 국내 반도체산업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62.8% 증가한 603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월 수출 600억 달러를 돌파¹⁰⁾
- 9월 반도체 수출은 전월대비 29.3%, 전년동월대비 262.8% 증가한 603억 달러로, △견조한 메모리 수요 △가격 상승세 △분기말 효과 등의 영향으로 사상 최대 월 수출실적을 기록
 - AI 확대 및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위한 반도체 수요와 D램 및 낸드플래시의 고정가격 상승세가 꾸준히 지속됨에 따라 지난 8월에 이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경신
 - 지역별로는 우리나라의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이 8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세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는 가운데, 베트남, EU 등 국가에서도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수출실적에 영향
 - 세부 품목별로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전년동월비 358.6% 증가한 540.7억 달러, 시스템 반도체 수출이 전년동월비 28.8% 증가한 55.4억 달러를 기록
 - D램과 낸드플래시 고정가격의 전월대비 상승폭은 지난 7월 이후 둔화하고 있으나, 견조한 수요의 영향으로 D램은 전년동월비 312.7%, 낸드플래시는 전년동월비 707.7% 증가하는 등 고정가격 상승세가 지속

[표 1] 반도체 수출액 및 주요품목 가격

(단위 : 억\$, \$)

구분	'26.02	'26.03	'26.04	'26.05	'26.06	'26.07	'26.08	'26.09
반도체 수출액 (전년동월비 증감률)	251.6 (160.8%)	328.3 (151.4%)	319.0 (173.5%)	371.6 (169.5%)	448.2 (199.5%)	410.1 (178.8%)	466.5 (209.1%)	603.0 (262.8)
D램 고정가격	13.00	13.00	16.00	20.00	21.00	24.00	25.00	26.00
낸드플래시 고정가격	12.67	17.73	24.16	26.51	28.82	30.05	30.48	30.61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 동향(2026.10.01)' 참고 및 재구성

* 주 : D램 고정가격은 DDR4 8Gb RAM을 기준으로 작성

- (전국)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반도체 초과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반도체산업의 2026년 8월 생산 및 9월 수출의 호조세 유지
- (생산지수) 2026년 8월 국내 반도체 관련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2.2%,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한 155.8로, 생산 호조를 지속하며 보합세

10) 산업통상자원부 '2026년 9월 수출입 동향(2026.10.01)' 참고.

- '26년 8월 기준 반도체 관련 부문의 재고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3.4% 증가한 118.7로, 7월부터 기준치(100)를 넘어 전년동월비 상승하는 추세
- 전국 반도체 제조 부문 역시 8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한 187.8을 기록하며 생산 호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재고지수가 3개월 연속 기준선(100) 근방에서 전년동월비 증가세를 보이는 것에 주의할 필요
- (품목별 수출액) 2026년 9월 반도체 총수출액¹¹⁾은 전월대비 13.3%, 전년동월대비 222.1% 증가한 약 4,378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반도체 수출 호황세가 지속
- 부문별 전년동월비 증감률은 △메모리 반도체(302.2%) △반도체 제조장비(73.1%) △반도체 디바이스(57.0%) △시스템 반도체(38.6%) 순으로, 모든 부문이 2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증가
- 다만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중량 기준으로는 전년동월대비 23.5% 증가하는 등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수출 증가율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가격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

○ (인천) 2026년 8월 인천 지역의 반도체 부문 생산 경기는 생산지수에 비해 재고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등 다소 부정적인 가운데, 9월 기준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동월비 73.5% 증가하며 호조

- (생산지수) 2026년 8월 기준 반도체 관련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13.2%, 전년동월대비 5.3% 감소한 132.2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
- 출하지수가 2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같은 기간 재고지수가 2개월 연속 500 이상을 기록하는 등 크게 상승하고 있어 관내 반도체 제조 관련 기업의 생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했을 가능성
- (품목별 수출액) 2026년 9월 인천시 반도체 수출액은 시스템 및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의 증가에 힘입어 전월대비 25.3%, 전년동월대비 73.5% 증가한 약 265천만 달러를 기록
- 부문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시스템 반도체(73.5%) △반도체 제조장비(60.6%) △반도체 디바이스(36.7%) △메모리 반도체(105.8%) 순으로, 모든 부문이 전년동월비 증가

[표 2] 국내 반도체 관련 산업생산지수 및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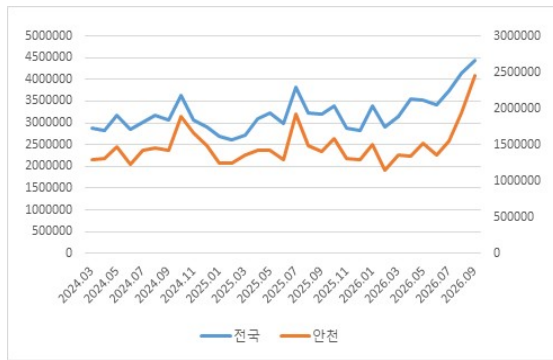
지역	항목	'26.05	'26.06	'26.07 (p)	'26.08 (p)	'25.08	전월비 (%)	전년 동월비 (%)
전국	전자부품 등 제조업	147.5	159.3	152.5	155.8	153.4	2.2	1.6
	반도체 제조업	180.8	203.9	184.5	187.8	185.2	1.8	1.4
인천	전자부품 등 제조업	136.0	165.9	152.3	132.2	139.6	-13.2	-5.3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20=100)' 참고 및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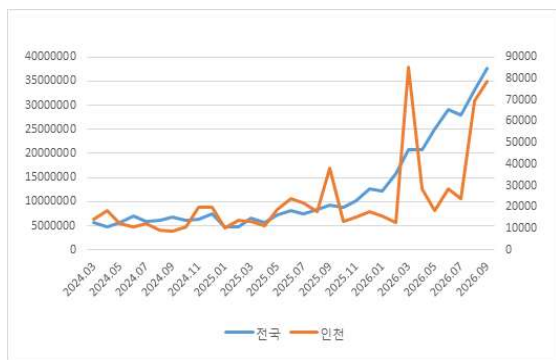
* 주1 : 산업생산지수 파악에 활용한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악 및 통신 장비 제조업(C26)' 및 '반도체 제조업(C261)'의 자료를 이용함. 인천 지역 자료의 경우, '반도체 제조업'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상위 항목을 이용

2 :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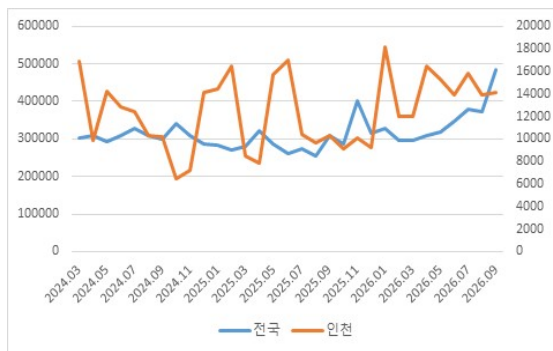
11) 시스템 반도체(HSK854231), 메모리 반도체(HSK854232), 반도체 디바이스(HSK8541), 반도체 제조장비(HSK8486)의 수출액을 더한 합계값을 의미.



[시스템 반도체(HSK854231)]



[메모리 반도체(HSK854232)]



[반도체 디바이스(HSK8541)]



[반도체 제조장비(HSK8486)]

* 자료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 수출입 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수출 금액은 1,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은 인천 기준으로 작성

[그림 1] 반도체 품목별 수출 동향(2026.09)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2026.09 잠정)

(단위 : 십만\$, %)

	전국					인천				
	수입		수출		수지	수입		수출		수지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반도체	184,007	60.7	584,825	161.7	400,819	32,500	95.2	29,756	54.0	-2,745
자동차	22,431	20.3	78,466	-7.3	56,035	936	-22.8	6,718	-8.0	5,782
기계장비	93,291	30.0	222,365	184.9	129,074	2,602	1.0	4,271	-20.7	1,669
바이오-의약	9,621	-4.5	8,098	-13.2	-1,523	944	20.5	5,892	-16.1	4,948
바이오-화장품	1,943	-1.9	14,449	31.2	12,506	36	19.8	2,341	19.0	2,306

* 자료 : K-stat 무역통계 '품목별, 지역별 수출입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품목명은 순서대로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HS85)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HS87)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HS84) △의료용품(HS30)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 화장용품(HS33) 등

2 :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비율로 표기

경제 > 정부, 자원안보 중장기 로드맵 마련



#산업통상부

- 정부가 △원유 의존도 완화 △비축시설 확충 △핵심광물 지정·비축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안보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
 - 정부는 중동전쟁 등 대외 위기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원안보 대비태세 구축을 목적으로,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 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 등을 심의·확정
 - 원유·천연가스는 도입경로 및 방식, 유종을 다변화해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완화하는 등 안정적인 도입 구조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충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비축 역량을 강화하여 공급망 회복력을 증진할 계획
 - 또한 광종별 공급망 취약성, 국내 산업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광물 지정을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하고, 취약 광종을 중심으로 △비축량 확대 △비축 목표 365일 상향 △재자원화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여 수급 위기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체계를 구축할 예정

경제 >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시행



#국토교통부

-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갔더라도 같은 요금소로 15분 내 재진입하면 고속도로 진입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이 시행 중
 - 재정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진출한 경우 기본요금이 즉시 차감되고, 민자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진출한 경우에는 착오 진출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 이용 때 자동 차감
 -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별도의 감면 안내 멘트는 나오지 않으며,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는 이번 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

구분	요건
착오진출 요금소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
시간 / 횡수	진출 후 15분 이내 재진입 / 차량당 연 3회 한정 (당해년)
장소	진출한 요금소와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 (민자 영업소 제외)
결제수단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
감면액	기본요금(폐쇄식 900원)

#관계부처합동

- 지난 10월 1일 정부는 청년기 첫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아이 자립 펀드 지원방안'을 발표
- 금번 펀드는 단기적·소비성 수당 지급 위주의 아동지원 프로그램 대신 미래를 대비한 장기적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사회 진입 시 최소한의 자산을 갖고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
 -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납입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적립·투자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설계
 - 펀드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027년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으로, 2026년 9월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해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가 최대 연 120만 원을 지원할 예정
 - 자립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고, 납입 기간이 지난 후 바로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만 34세까지 비과세 혜택을 유지

소득수준	정부 지원 금액(연간)	추가 납입(연간, 최대)
중위소득 50% ↓	120만 원 (정액)	80만 원
중위소득 50%~100%	(부모) 50만 원 + (정부) 100만 원 (최대, 1:2 매칭)	50만 원
중위소득 100%~150%	(부모) 100만 원 + (정부) 100만 원 (최대, 1:1 매칭)	-
중위소득 150% ↑	없음	200만 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9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 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와 폐자동차 구동모터에 포함된 희토 영구자석의 국내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
- 기후부는 일반 폐차를 대상으로 하는 '순환이용 자원'과 현대자동차의 신차 개발용 시험차를 대상으로 하는 '순환고리 실증' 등 2가지 방식으로 금번 순환이용 체계 시범사업을 추진
 - '순환이용 자원' 사업에서는 폐차장에서 수거한 구동모터를 국내 재활용업체로 공급하는 회수·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순환고리 실증' 사업에서는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활용해 구동모터의 해체·분리부터 희토 영구자석, 구리 등 유가자원의 선별·회수까지 실제 재활용 공정을 실증
 - 특히 구조가 복잡하고 차종별 형태가 달라 해체가 어려운 구동모터 해체 공정의 안전성, 유가자원 회수율, 분리·회수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
 - 기후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폐차 단계에서 구동모터의 회수·인계를 촉진하고 재활용 현장에서 영구자석 등 유가자원을 적정하게 회수할 수 있게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가 이탈리아·독일·프랑스 등 유럽 3개국에서 시장 탐색부터 현지 판매, 유통망 확보, 인증·바이어 연계까지 기업의 진출 단계에 맞춘 지원을 진행
 - 최근 중소기업 화장품의 유럽 수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부는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팝업스토어’, 현지 판매와 유통망 확보를 지원하는 ‘플래그십스토어’, 제품 홍보·판매부터 인증과 바이어 연계까지 종합 지원하는 ‘플래그십 허브’를 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 단계에 따라 운영 중
 - 이탈리아에서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곰다(Gop-da)’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선보이고 현지 소비자 반응과 시장 가능성을 살피고,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을 진행
 - 독일에서는 지난 9월 28일 대형 쇼핑몰 밀라네오(MILANEO)에 플래그십스토어 ‘NEMO Store × K-BEAUTY ON’을 개소하여, 국내 기업의 현지 판매 실적 축적과 기업 간 거래(B2B) 유통망 연계를 지원
 - 프랑스 파리에 플래그십 허브 ‘mmm(Maison des Mille Muses)’를 개소하여 K-뷰티 제품과 인공지능(AI) 기반 개인 맞춤 색상(퍼스널컬러)·피부 진단 등 뷰티테크를 선보이고, 유럽 화장품 신고(CPNP) 컨설팅과 현지 바이어 연결을 지원
- 복지부는 이후에도 미국, 베트남, 칠레, 인도네시아, 모로코, 싱가포르 등으로 해외 체험·판매장을 확대해 국내 화장품 기업의 해외 판로 확보를 지원할 계획

#산업통상부

- 정부가 △중견기업 핵심역량 제고 △성장 사다리 강화 △5극3특 지역기반 중견기업 확충 △미래 패러다임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
- 금번 계획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이자 대·중소기업을 잇는 미들파워(Middle Power)인 중견기업이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춘 산업생태계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

구분	주요 내용
중견기업 핵심역량 제고	• 1조 원 규모 ‘데카코어(Deca-core)’ 프로젝트 추진으로 10대 초격차 기술 확보 • 핵심 소재·부품·장비·공정·완제품 등 기술개발 및 특허·표준·판로·인증 등 상용화까지 지원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강화	• 후보→초보→선도 등 중견기업 성장단계별 R&D·실증·생산·수출 지원 연계 •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개선 및 ‘중견기업 졸업유예(대기업 조건 달성 후 최초 5년)’ 제도 시행
지역기반 중견기업 확충	• 5극3특 성장엔진 연계 투자 인센티브 제고, 정책금융·상생형 R&D 등 지역 중견기업에 13.7조 원 이상 투자 뒷받침
미래 패러다임 대응	• 2030년까지 제2원청 중견기업의 약 50% AI 전환 추진(중견기업 M.AX) • 철강, 화학 등 탄소 다배출 분야 중견기업의 친환경 설비투자 및 제조현장 안전전환 지원

#국무조정실

- 정부가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고,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원자재 수입 절차 △전력 활용 △AI 가이드라인 △설비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발표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선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 수입승인 규제 개선	• HS코드 분류에 따라 수입 시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 승인 필요	• 항공 관련 안전관리와 관련성이 낮은 품목은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출입공고」 개정 추진
재생에너지 다수-다수 직접전력거래 일부 허용	•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1:1 △1:다수 △다수:1 거래 방식 허용	• 「메가특구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특구 내 PPA에 한해 다수:다수 거래 허용
국가핵심기술 분야 생성형 AI 활용기준 마련	• 생성형 AI의 필요성이 확대 중이나 국가핵심기술 보호 방안에 대한 정보·이해 부족	• 2027년 1분기까지 생성형 AI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공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영업비밀 보호 강화 및 산정기준 합리화	• 연 1회 이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가 필요하나, 계획서 내 실제 물질명 등 영업기밀 정보 포함될 가능성	• 계획서 내 보호 필요 정보는 실제 물질명 대신 총칭으로 대체 표기 즉시 시행 • 화학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물질의 실제 함량 고려 추진
환경·전기 등 현장규제 합리화	• 통합 환경허가, 화학물질 관리, 전기설비 점검 등 일부 제도가 설비 변경이 빈번한 생산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	• 일정 요건 해당 시 변경 허가 및 가동개시 신고 수리 후 시운전 허용·사후 현장확인 실시

#관계부처합동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난 7일 정부는 향후 10년간 재정과 기후금융 등을 포함한 1,00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추진하는 내용의 「녹색전환계획(2026~2035)」를 발표
 - 우선 국내 주력산업이자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의 주요 공정을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확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수송부문 전동화 △핵심 10대 녹색산업* 육성 △기후테크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GX 달성을 추진
 - *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 등 /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SMR, 전력기기, 전력반도체, 히트펌프, 수소, CCUS 등
 - 또한 정부는 5국 3특을 중심으로 산업특성에 기반한 지역별 GX 대표모델 및 GX 거점을 발굴·육성할 예정이며,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기후리스크 선제대응 투자 금융지원 △기후대응기금 확대 △녹색 국채 제도 마련 △GX 초기단계 세제 인센티브 등 지속가능한 전 국토의 GX를 추진할 계획
 - 금번 계획의 상세 내용에 관해서는 「녹색 혁신으로 경제 대도약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문서 참고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포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시행 2026.07.21.)」.
- IBM, “인공지능(AI)이란 무엇인가?”, 2024.08.09.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인공지능 산업 분류체계 개선 연구」, 2026.04.
- World Bank, 「East Asia & Pacific Economic update - Riding the AI Wave」, 2026.10.
- The Asia Business Daily, “World Bank Raises Asia-Pacific Growth Forecast to 4.5%...“In Korea, Semiconductors Account for 43% of KOSPI””, 2026.10.06.
-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2026.02.25.
-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2026.06.04.
- 인천연구원, 「인천시 AI 산업혁신 구상: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2026.09.
- 인천테크노파크, 「2025년 인천 AI 산업 실태 및 AX 수요조사 용역 결과보고서」, 2026.02.
- 인천광역시, “인천시,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사업 선정”, 2024.10.28.
- 인천광역시, “인천시, 산업부 인공지능(AI) 기반 자원순환 실증 공모사업 최종 선정”, 2025.06.30.
- 인천광역시, ““인천 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 실증·기술 한 단계 도약한다””, 2021.09.27.
- 인천광역시, “인천시, ‘데이터 산업 청년인재와 기업’ 동반성장 돕는다.”, 2021.04.18.
- 인천광역시, “인천시, 2024년까지 AI개발자 240명 양성 나선다”, 2021.04.11.
- 인천광역시, “인천시, ‘With AI’ 실증사업 함께 할 지역 기업 찾는다”, 2023.05.30.
- 인천광역시, “인천시, 인공지능 대전환(AX)으로 지역산업 디지털 혁신 가속화”, 2025.04.10.
- 인천광역시, “인천시, ‘피지컬 인공지능(AI) 실증센터’ 구축 착수 제조·물류 현장 지능화 속도”, 2026.10.07.
- 인천광역시, “인천시,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 본격 추진”, 2026.10.13.
- 산업통상부, “월별 수출입 동향(매월호)”.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35년까지 특정지역 원유 의존 50% 이하로…자원안보 로드맵”, 산업통상부, 2026.09.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국토교통부, 2026.09.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녀에 최대 7000만 원 목돈을…‘우리아이 자립펀드’ 내년 출시”, 관계부처합동, 2026.10.0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폐전기 하이브리드차 모터 히트류 재활용…연 최대 15톤 회수”,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9.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뷰티 유럽 공략…이탈리아·독일·프랑스에 판매 거점 마련”, 보건복지부, 2026.09.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0대 초격차 기술’ 중견기업 키운다…2035년까지 1조 원 투입”, 산업통상부, 2026.10.0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디스플레이 산업 규제 개선…강화유리 수입 간소화·AI 활용기준 마련”, 국무조정실, 2026.10.0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녹색 대전환에 1000조 투입…탄소 감축 넘어 신성장동력으로”, 관계부처합동, 2026.10.07.
-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 감축을 넘어 신성장동력으로, 정부 1,000조원 투자로 K-GX 본격 가동”, 2026.10.07.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6-10호(2026.10.23)

발 행 처 인천연구원
발 행 일 2026년 10월 23일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 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